

로컬푸드 기반, 고령자 건강힐링 식단 개발

도-7개 생생마을-한국식품연구원, 지역문제 해결 '맞손'... 지역 우수 식재료 검증·식단 개발·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등 추진

전북도가 도내 7개 생생마을과 한국식품연구원이 함께 과기정통부·행안부 공모사업인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문제 해결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북도, 6개 지자체, 7개 선정 마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 우수 식재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 건강 식단 개발,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밀키트 제품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2~23년까지 총 사업비 6억원(국비 4.5억원, 지방비 1.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식단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층의 만성질환 예방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마을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힐링식단 개발은 임실 강서마을, 진안 하가파마을 △제품 사업화로 김제 외갓집마을, 증촌마을, 고창 화산마을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은 익산 용머리마을, 정읍 원정마을에서 추진된다.

건강힐링식단 개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영양 성분이 뛰어난 식재료를 활용한다. 지역 어르신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기로(耆老) 밥상, 7세 외상 등 농촌의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이 가능하다. 또, 밀키트 및 HMR 제품 사업화

로 도시민 및 방문객 등과 연계해 지역소득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제안된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사업은 지역의 먹거리와 어르신 건강을 지역공동체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농촌마을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 이전기관과 마을간에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한식연 장대자 박사는 "전북의 다양한 식재료를 발굴하고 과학기술을 접목해 타 지역과 차별화는 물론 고령 주민의 건강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실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내달 8일까지 신청 접수·5개소에 각각 4천만원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청년이 참여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하반기 공모를 9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1.2억 원, 시군비 0.8억 원 등 총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며, 1개소당 4천만 원씩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대표가 청년이고, 청년 비율이 40% 이상으로 전라북도에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단

체 또는 기업 등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시·군은 9월 8일까지 전라북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청년활동가, 마을만들기 관계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친다.

전북도는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의 실효성, 지역주민 참여, 지역활력 도모 등을 평가해 예비 청년마을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스마트팜 창업의 첫 발을 딛는다'

전북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생 5기 오리엔테이션 개최... 선발 청년 52명 대상·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서 성료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5기 교육생'을 모집해 최종 52명을 선발해, 오는 17일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전문 트레이너를 교관으로 채용해 2011년부터 전문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의 시범사업(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해 준공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유리온실 2.3ha)를 활용해 현장 실습 중심의 국내 최고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양성에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선발된 5기 교육생은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선행학습을 거친 후

9월부터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관련 온실, ICT 및 복합 환경관리와 농업경영·마케팅 등 농업의 기초부터 경영까지 총 20개월의 교

육을 받게 된다.

수료 후에는 스마트팜 임대 온실(수행실적 우수자, 3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산점, 후계농업경영인 수료생 100명 별도 선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이 전북도에서 정착해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예정이다"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이 성공·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내달까지 14개 시군 합동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행,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총 3,705개소로 교량 1,074개소, 터널 52개소, 옹벽·절토사면 49개소, 공동주택 1,595개소, 공동주택 외 기타 건축물 및 하천시설 등 985개소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 계절성 집중호우 예상에 계기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김경수 기자

대장교는 교량이 노후되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D등급)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69억 예산을 투입해 올해 교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가설(L=31m, B=8.5m)하여 2023년 6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전북도 소방기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군산시 옥도면 대장교 현장을 방문해 군산시청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의 구조·교량·안전분야 전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 계획 및 대책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점검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구매량에 따른 리터당 경유 322원·휘발유 276원 지원·1차 신청기간 29일~내달 23일까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경유 및 휘발유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132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농

업인 등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는 리터당 전년 평균 경유 815원, 휘발유는 781원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경유 1,458원, 휘발유 1,333원으로 각각 79%, 71% 상승했다.

이에, 전북도는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예산을 '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절반인 경유 리터당 322원, 휘발유 리터당 276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김관영 지사의 민생경제 4대 비상대책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올해 3월~6월까지 4개월 동안 구매한 경유, 휘발유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시·군별 예산이 소진되거나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 1면에 이어...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 시작

현재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자광 측 개발계획(안)이 접수되면 사전협상운영지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우

시장의 지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졌으며, 논의를 위해 전주시장과 (주)자광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방기 전주시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부속대학과 원광대 교수 역임
 - 전주매일 특약강사
 - 한·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0주년 및 40주년, 단지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정리극사 · 식이상담사
 - 개성 "665 스포츠 지역유니캐이션", "나쁜 배운, 뱀, 뱀"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안지늘이희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